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uly 26, 2018 Vol. 634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에서 열렸다.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회복 경험해"

제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114명 청소년 참가

제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에서 Turn To Me(사 45:22)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6개 교단 소속 19개 교회에서 114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3일간 이들을 섬기기 위해 132명의 교사 및 봉사자들이 헌신했다.

이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열기 힘든 미자립교회와 작은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나성순복음교회가 2016년 초교파적으로 시작했다. 제1회 때부터 이 교회가 모든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액 무료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윤 목사가 주강사로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 이 목사는 남가주 지역에서 청소년 목회를 하다 현재는 한국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외국인 목회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간증하며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적 도전을 던졌다.

또한, 한인가정상담소가 약물 중독 세미나, 데이트 폭력 세미나를 진행했고 둘째 날 오후에는 인근 야외 물놀이장의 한 구역을 통째로 대여한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다.

10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서도 매끼 정성껏 식사가 준비됐고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와 장로들이 직접 기도원을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바비큐를 대접했다. 청소년들을 위해 24시간 중보기도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마지막 저녁 집회에서는 청소년,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든 참가자들이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했다. 이 시간은 교회 간의 벽, 세대 간의 벽 등 다름을 뛰어넘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수련회 후, 한 청소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됐다. 나도 이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간증했다. 이 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지니아주에서 왔다는 한 청소년은 "말씀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다," 또 다른 청소년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회자와 선교사 무료 한방 진료

신광야선교교회(제임스 장 목사)가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장수한방병원 대표원장이기도 한 제임스 장 목사는 "어렵게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 부부와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부부들을 섬기기 원한다"면서 "침 치료를 포함한 보약도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목회자의 경우 시무 교회 주보를 지참해야 하며,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증을 지참하면 된다.

장수한방병원은 침과 약재, 추나요법 등으로 다양한 질병과 통증 등을 치료하고 있다.

문의) 213-800-5205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

그레이스미션대 Ph.D. 학위 인가

선교사 및 이민목회자 위한 특별장학 혜택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가 최근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과정에 대한 인가를 TRACS로부터 받아 오는 8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레이스미션대는 기독교 대학 및 신학교 학위 인가기관인 ATS, ABHE, TRACS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획득한 이래 이번에 Ph.D. 과정에 대한 인가까지 받는 쾌거를 이뤘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한인신학교에서는 인가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박사 학위의 경우, 전문박사 학위인 D.Min.이나 D.Miss.가 아니라 학술 박사 학위인 Th.D.나 Ph.D.에 대해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교육과 학문적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어로 Ph.D. 과정이 가능한 경우로는 미국신학교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가 성경사역학으로 Ph.D. 학위(ATS 인가)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선교학으로 Ph.D. 학위(ABHE 인가)를 수여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는 미국 전체에서는 세 번째, 한인신학교 가운데는 두 번째로 한국어 Ph.D. 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레이스미션대는 600명이 넘는 졸업생 가운데 40%가 해외선교사로 파송됐을 만큼 선교지향적 학교다. 학교 측은 이번 Ph.D. 과정 또한 수준 높은 강의와 철저한 학사 관리로 현장 선교사들의 선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일조하길 기대하고 있다.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총 5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비는 학점당 480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에겐 무려 40%, 국내 체류 선교사에겐 30%, 이민목회자에겐 20%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선교사들이 미국까지 오지 않고도 전체 학점의 절반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외에 확장 클래스를 개설하는 등 배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은 인도에서 15년간 선교하다 현재 예장합동 GMS선교회 미주 OMTC 훈련원장과 그레이스미션대 박사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구 박사가 이끌게 되며 디렉터로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유명한 이상훈 박사를 초빙했다.

한편, 이 학교는 이미 ATS로부터 D.Miss. 학위 인가를 획득한 만큼 이번 Ph.D. 학위가 TRACS에 이어 ATS로부터도 인가받는 절차를 곧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714-525-0088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 인 태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 오후 5:30
▪금요예배 : 오후 5:30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Wedding Mission
만남 무료 결혼예식 모집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혼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계신분과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혼예식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기간: 2018년 7월 1일~2018년 8월 15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만남의교회 우편접수
www.churchmannam.com 신청서 다운로드
pastor@churchmannam.com (문의: 818-882-9191)
선정자는 8월 말 개별통지
주 최: 만남의교회 웨딩미션팀
Mannam Presbyterian Church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 E: pastor@churchmannam.com | W: www.churchmannam.com | T: 818-882-9191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마 음 챙 김

김 보 라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웃는 일과 행복한 일이 가득하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르막길도 경험하고 내리막길도 경험하면서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또한, 우리는 숨 가쁘게 달려가는 하루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차 한 잔의 여유마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유가 없다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다루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고민을 다루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느 순간 피폐해진 감정과 상한 마음을 마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루기 위해 마음챙김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음챙김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식백과 사전 의미를 보면 '대상에 주의를 집중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음챙김의 어머니라 불리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마음가짐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마음을 이 순간에 충실하게 두고 현실을 수용하며 모든 상황을 마음의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명상, 걷기, 호흡법, 적당한 운동과 집중해서 먹기 등은 마음챙기기의 방법으로서 한 번쯤 들어보았던 요소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오롯이 가지면서 그 시간을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챙김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침묵 기도를 통해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다. 침묵은 주변의 소리가 없어야 한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던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든다. 의지적으로 집중하기에 힘쓰다 보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틀어졌던 자세를 바로잡고, 핸드폰을 끄고, 하던 것을 내려놓는다. 나의 소리를 끄고 고요함 속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침묵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다. 그 순간만큼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순간이 된다. 이로써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안에 어지러웠던 생각과 복합적인 감정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서서히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 기도를 통해 복잡한 생각에서 물러나 마음의 소리를 듣는 평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챙김 방법은, 지금 현재의 솔직한 나와 직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처럼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들일 수도 있다. 거울의 투명함처럼 진솔하게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져보자. 만약 그것이 의식했든 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든 모두가 지금 현재의 '나'를 말해주고 있다.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왜 마음이 어려운지, 화가 나 있는지 돌아보면서 마음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억압된 감정,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며 안아주는 것이 나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마음이 번뇌하고 어지럽고 꼬여 있을 때 우리는 소화불량, 두통 등 신체적인 부분에 신호가 오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있던 입맛도 뚝 사라진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배력이 있고 그 영향이 매우 크다. 마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정작 우리 속마음도 모른 채 그냥 지나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보도록 하자.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이 몸과 영혼에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지 알게 하는 말씀이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은 참으로 신기하리만큼 큰 영향을 우리 삶에 주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챙기는 것은 이렇게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챙김에도 애써보자.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내면을 맞이함으로써 충만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해본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과거 TEE 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지역교회에 최적화된 성경공부

TEE 지도자 세미나, 8월 20일-21일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20-21일, 애나하임 아름다운교회(이봉하 목사,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에서 미주지역 TEE 지도자 세미나가 열린다. 강사는 한국 사역을 관장하는 KTEE 미니스트리 디렉터 한순진 목사와 김일경 목사(KTEE 해외 이사장), 임홍일 목사(텍사스, 비전선교교회 담임 & KTEE 미주 코디네이터)가 수고하게 된다.

한순진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는 더 이상 교인들을 교회로만 불러들이는 사역에만 머물 수 없다"며 "이제는 랄프 윈터가 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며, TEE는 지역교회에 최적화된 학습의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EE의 과정들은 전도로부터 시작해 새신자, 사역자 육성, 심화단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목사 안수를 충족할 수 있는 과정들까지 준비되어 있다.

이 세미나는 등록비가 $100이며 각종 문의는 전화 714-350-4211로 하면 된다. TEE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은 www.kte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임감사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얼바인중앙장로교회 이기업 목사 위임

얼바인중앙장로교회가 지난 7월 22일(주일) 이기업 목사 위임감사예배 및 위임식을 거행했다. 미국장로회(PCA) 한인서남OC노회는 이날 예식을 통해 이기업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포했다. 예배는 노회 서기 박상목 목사(가주주님의교회)의 인도로 시작돼 회계 이규태 장로(남가주사랑의교회)가 기도하고 부회계 김용석 장로(디사이플교회)가 성경봉독, 부노회장 이영찬 목사(열린문교회)가 설교하는 등 노회 임원들이 순서를 맡았다. 이어 이영찬 목사가 이기업 목사와 성도들로부터 위임서약을 받았으며 박대근 목사(재미고신 증경총회장)가 축사, 김용철 목사(얼바인중앙장로교회 전임목사)가 권면했다. 얼바인중앙장로교회 박종혁 장로가 감사 인사 및 광고를 전한 후 축도는 이기업 목사가 했다.

이 목사는 고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보스톤대학교, 고든콘웰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복음대학교와 게이트웨이신학교에서 구약학과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다.

쉘비 권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인가 및 학생모집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정회원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북미주 한인 신학교 최초로 TRACS 인가 아래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 영역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본 과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본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ts tracs ABHE BPPE CHEA ED.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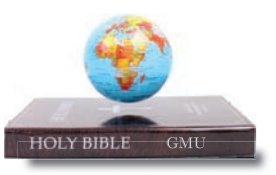
특전: 선교사장학금 / 목회자장학금 / I-20 발급 / 교수요원 양성 / 탁월한 교수진

박사원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선교학 박사 (Doctor of Missiology)

가을학기 1차 서류지원 마감 8월 30일(금)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담당 황의성박사)
dmiss@gm.edu/phd@gm.edu
홈페이지 www.gm.edu

GMU 학위과정
BA 학사
MAICS 선교문학석사
MACE 기독교 교육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 Fax. 714.525.0089
gmu@gm.edu | www.gm.edu

재활용품 모아 1만7천 달러 장학금 전달

만남의교회, 장학금 수여식과 무료 결혼식으로 지역사회 섬겨

만장 장학금 수여식

샌퍼난도밸리에 있는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가 올해도 만장 장학금을 17명의 학생에게 각각 1천 달러씩 수여했다. 만남의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장학금을 교회와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밸리한인목사회, 디본셔경찰서, 밸리한인학부모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지난 15일(주일)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의 명칭인 만장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萬丈으로 길이가 만 길이 된다는 뜻으로 '아주 대단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萬障으로 수많은 장애를 뜻한다. 첫 번째 의미에 따라,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 두 번째 의미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돼 왔다. 교회는 이 장학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 원칙을 두고 있다. 한두 사람의 거액 후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뜻을 모은다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병을 재활용하고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마련한다. 기금 모금 방식도 만장이다. 그러나 이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이 교회는 오는 10월 즈음에 무료 결혼식 행사를 열어 예비 부부, 혹은 기혼 부부를 도울 예정이다.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 1쌍, 그리고 이미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기혼 부부 3-5쌍을 초청한다. 교회에서 결혼식 자체, 신부 웨딩드레스 및 화장, 웨딩 촬영, 피로연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들을 위한 결혼예비학교도 2주간 개최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회 웹사이트 www.churchmannam.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교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VBS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교사들

작은 교회 위한 VBS 열려

작은 교회를 위한 여름성경학교(VBS)가 예수마을교회(정인호 목사) 주관, 감리교 남가주 동지방회 후원으로 7월 19일(목)-22일(주일)까지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렸다. 원래는 교단 안의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가 현재는 초교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50명 학생이 참가했고 40명 스탭이 봉사했다. "난파된 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심"을 주제로, 다양한 스테이션으로 나눠 그룹별로 성경공부와 크래프트, 게임과 함께 신나는 찬양과 율동, 달란트 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예수마을교회 교육팀장인 이승아 집사는 "매년 우리 아이들이 VBS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마을교회 정인호 목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한 연합 사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건강한 한인가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인가정상담소-미주장신대 협력해 전문가 교육

제니퍼 오 카운슬러가 강의하는 모습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기독교 사역자 11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1주일 동안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미주장신대 캠퍼스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주장신대가 재학생을 위한 여름특강으로 개설했다. 수강생들은 폭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역사·심리·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의 관련 부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사례와 상담법, 지원 방법 등을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한인 교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양하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한인 교계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본교 재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여름학기 특강으로 개설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강생 전원은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증을 받았다.

시즈 오브 워십의 과거 공연 모습

시즈 오브 워십, 8월 5일 뮤지컬 공연

어린이 선교 뮤지컬팀 시즈 오브 워십(SOW, Seeds Of Worship)이 오는 8월 5일 오후 7시 라미라다 퍼포밍아트센터(1490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에서 〈Right On Time〉이란 주제의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 시즈 오브 워십은 2010년 15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현재는 130명 학생이 매주 모여 연습하고 있다.

중앙상공회의소 정창식 회장 취임

정창식 회장

오렌지한인교회 정창식 집사가 남가주한인중앙상공회의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정 집사는 캘리포니아골든대학 총장과 풀러턴 시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오는 8월 2일 저녁 7시 부에나팍 홀리데이인에서 취임하게 된다. 그는 남가주에서 한인상권과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해 정부 및 주류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한식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4〉

멕시코와 세계를 향한 꿈이 자라는 곳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몇 주 전 멕시코시티에서 2018년 멕시코 장로회 총회가 열렸다. 73개 노회의 3500여 개 교회를 이끄는 총회다. 그 총회에 멕시칼리에 있는 바하캘리포니아장로회신학교 총장인 임원석 선교사가 귀빈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 신학교가 멕시코 전체의 장로회신학교 중에서 최우수 신학교로 선정되어 학교에 표창장과 임 선교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한 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중 이 신학교 출신이 3명이나 돼 기쁨이 더욱 컸다. 임원의 절반인 셈이다. 총회 석상에서 총회원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고 강단에 오른 임 선교사는 먼저 지금까지 학교와 자신을 인도해 오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학교의 설립부터 발전과 부흥의 역사를 회고하며, 현재의 학교 상황과 앞으로의 학교의 비전 등을 제시했다.

필자의 교회는 지난 20년간 이 대학과 임 선교사의 교회개척 지원 사역에 미력으로 참여하면서 매년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더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언제인가 선교사와 학교를 축복하면서 "주여! 이 학교가 멕시코 현대교회사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임 선교사가 조선의 마포삼열과 같은 멕시코의 마포삼열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했던 생각이 난다.

20년 전 멕시코에 신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기도를 요청했을 때 주변 대부분 선교사들은 부정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임 선교사를 비방하기까지 했다.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이 주는 어려움, 초창기 이웃들에게서 당했던 푸대접, 심지어 총회에서까지 음해하는 이들로 인해 많은 심적 고충을 당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향하는 기도의 자세로 임 선교사 부부는 견디고 이겨냈다. 지금은 학교 출신 동문들이 선교사 부부를 부모처럼 여기며 매년 졸업 때마다 찾아와 동문장학금을 만들어 대를 잇는 실로 명문 신학교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필자도 졸업식 때마다 초청을 받고 참여하고 있다. 이제 그 졸업식은 교단 전체의 경사요, 그 마을의 축제요, 신학생과 졸업생 가족들 등 모든 이들의 기쁨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향한 축복이 가득한 졸업식 장면을 경험한 이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그 감동을 기억하며 행복함을 되뇌게 된다. 졸업식은 선교사 파송식과 병행된다. 졸업생들은 자기가 사역하고자 하는 지역을 향해 곧바로 파송 받아 떠난다. 참으로 비장하며 멋지다. 이 학교의 종들은 멕시코와 세계를 향한 꿈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필자가 최근 참석한 멕시코 장로회 총회 모습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 선진국 핀란드의 기독교적 행복 인프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매년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에서 1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행복 보고서는 개인의 삶 전체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평가합니다. 예컨대 1인당 소득수준,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복지),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관용 등 포괄적으로 행복 인프라를 평가합니다.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의하면 행복 선진국은 1위 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덴마크, 4위 아이슬란드, 5위 스위스 등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57위를 차지했고 이웃 일본은 54위이고 미국은 18위이며 필리핀은 71위, 홍콩은 76위를 차지했습니다.

행복 1위국 핀란드는 생소한 나라입니다. 사우나, 산타클로스의 고향, 그리고 자일리톨 껌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핀란드는 한국과 많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교육 욕구와 성취도가 높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 정서가 있다면 핀란드는 '은근과 끈기'를 뜻하는 '시수(Sisu)' 정신이 있습니다. 핀란드도 한국인들처럼 술을 사랑하고, 각종 IT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살피면 핀란드는 탁월한 '복지'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핀란드는 상당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춘 복지국가입니다. 핀란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무상교육을 제공하는데도 학업성취도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1등을 위한 교육열이지만 핀란드는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교육열이 높습니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핀란드인이 누리는 소박한 행복입니다. 핀란드의 행복을 전하는 책 '휘바 피난드'에서는 핀란드인이 누리는 행복은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자연과 가깝게 지내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며, 여름휴가에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과 같은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의 실천이 행복이요 삶의 기쁨임을 아는 것이 핀란드인들의 장점이고 국민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행복 1위 국가 핀란드인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소박한 행복은 우리들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사랑(복지)이 있습니다. 사회적 용납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들의 행복은 일상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행복입니다.

핀란드는 루터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민 90%가 종교세를 내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핀란드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핀란드인의 소소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 기쁨 그리고 감사로 행복 충만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핀란드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지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에 정착하는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기독교 국가에 정착하면서도 개종을 하지 않는데 핀란드에 정착한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핀란드 교회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만드는 건강한 기독교 문화는 행복 문화입니다.

사랑 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크루즈' 성황리

지난해 한인사회에서는 처음 시도돼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가 올해 더 큰 감동과 사랑을 체험하며 그 두 번째 여행을 마쳤다. 오픈뱅크가 주최하고 라디오코리아가 주관하며 엘리트투어와 애드뷰가 특별협찬한 2018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는 지난 13일 롱비치항을 출발해 멕시코 엔시나다를 거쳐 다시 롱비치로 돌아오는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됐다.

올해도 라디오코리아의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을 통해 사연을 접수했고 총 141개 편지 중 사연 심사와 가정방문을 통해 총 27개 가족 107명이 선정돼 사랑의 크루즈에 승선하게 됐다. 봉사자까지 합치면 총 130명 인원이었다.

멕시코 엔시나다에 도착해 크루즈 선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 라디오코리아의 김영준 사장 등 총 18명의 스탭들은 지난 1월부터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고 특히 지난해 특별 게스트로 참가했던 찰스 김 iCAN 회장과 영 김 가주 39지구 연방하원 후보 부부가 이번에는 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영화 베이비박스를 통해 잘 알려진 한국의 영아 보호기관인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함께 승선해 여러 가족들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봉사자들이 합심해 지난 1월 말부터 6개월 이상을 준비했다. 그래서인지 올해 사랑의 크루즈에서의 감동은 더욱 진했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주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믿음의 종류와 단계

마가복음 4:10-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믿음마다 종류가 있고 단계가 제각기 다르다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믿음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교훈을 다양하게 이해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갈릴리 해변에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앉으시고 사람들은 배를 향하여 비탈진 해변에 모여 앉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심을 듣는 중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지워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못해 상당히 궁금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홀로 조용히 계시는 곳에 열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니 예수님이 풀이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 마음 밭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길 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예 굳어버린 마음, 책임성도 없고 뉘우침도 회개도 없는 강퍅한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인 씨앗이 마음에 계속 떨어져도 굳어진 땅에 뿌리를 내리거나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마음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가게 내버려 두고 설교 들을 때 잘 듣게도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마음 밭은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새가 주워 먹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는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소망 없는 마음 가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그 씨앗이 금방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 굉장히 기뻐하고 기대도 가졌는데 햇볕이 뜨거워지니까 수분이 말라버리고 또 뿌리를 내리면서 바위와 돌들이 수분을 빼앗고 결국은 죽고마는 싹이 되어 버립니다.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말씀을 내던지고마는 경망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강퍅해진 마음 위에 한을 품고 살며, 누군가가 죽이고 싶도록 밉고, 원망스럽고, 온갖 혈기와 정욕이 한으로 맺혀있는 심령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들볶으며 살다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해결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 들을 때에는 기뻐하며 기대를 걸었다가 그 말씀들이 결국은 성과를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굳은 마음, 여러 가지 응어리진 돌덩어리로 인하여 더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말라죽어 버리고 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린 다음에 주님 처분에 따라 우리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정통한 영적 체질 신앙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나무가 우거진 그 틈새에도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사방에 뿌리를 거미줄같이 얽혀 내리고 거름의 양분을 다 빨아 올렸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더 이상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는 데다가 가시나무가 햇빛도 막아서 싹이 자라려다가 노랗게 잎이 변하면서 시들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 염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허욕으로 빚어진 염려입니다. 재리의 유혹은 재산 이익을 미끼로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20억 정도 가진 과부로 사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보니 돈이 사는 낙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모임들에 참석하여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없고 육신이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즐기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암 선고를 받고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권사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정리할 수가 없을 텐데 미리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쓰시고 가시면 천국에 가서 입장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참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다"고 하면서 "고아원 두 곳에 2억씩 전달해 주시고, 양로원 두 군데 2억씩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 돈이 없어 기초밖에 못 지은 교육관 짓는 데 필요한 만큼인 4억, 그리고 교회 장학기금으로 3억을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오길 그 적은 내용의 종이를 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나 싶어 병원으로 갔더니 그 종이를 찢어버리면서 아까 의사가 하는 말이 오진이라고 하니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플로넥시아'라는 말은 계속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엔 욕심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과 육의 합성체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흠모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며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그 본질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 본능을 좇아 허욕을 일삼고 그래서 육체뿐인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있는데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체 본능을 위하여 삽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고 육체는 흙으로부터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 속한 것, 이 세상 것을 위하여 허욕을 일삼게 되어 있고 영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 하고 애타게 찾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육간에 힘든 사정, 형편, 억울함, 내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더불어 해결과 위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종교심리(Religious mind)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 마음 속을 네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길바닥과 같이 다져지고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전혀 깨달음도, 감동도 없고, 후회도, 회개도 없는 심령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굳어버린 자기 마음을 말씀의 칼날이나 괭이나 삽으로 파서 일구어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들면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얻어졌을 때 그 사람은 평생 사는 목적이 하늘나라 가기 위한 목적뿐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 밭은 옥토 밭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도 바로 서서 천국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야겠지만 다른 영혼도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엔 사도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목회자들이고,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거듭난 신도들입니다. 목회자들에 의해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소망을 가꾸고 있다면 그 사람도 하늘소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인 생명의 비밀, 생명의 씨앗을 얼마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 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어버린 심령은 회개의 호미로 파 일구어서 응어리진 것 다 풀어버리고 돌도 바위도 깨뜨려 옥토가 되게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늘소망에 의해 결실할 수 있어야겠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씨를 계속 뿌릴 때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항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 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할렐루야 2018 대뉴욕복음화대성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혼합주의, 인본주의, 동성결혼은 악 신앙정통성 확립

뉴욕 할렐루야대회 무엇을 남겼나?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주최로 지난 9일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시작된 할렐루야 2018 대뉴욕복음화대성회가 11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이번 할렐루야대회는 예년의 형식에서 벗어나 집회 중에 찬양 순서를 다수 배치하는 등의 변화를 준 점이 눈에 띄었다. 찬양과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는 집회로 진행한다는 것이 올해 뉴욕교협 집행부의 구상이었고 이에 다양한 찬양팀들이 한국에서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집회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인원동원 측면에서 무난한 모습을 보였다. 강사 이영훈 목사는 3일간 설교에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성령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처음 선보인 찬양 중심의 할렐루야대회

이번 할렐루야대회에는 매일 5-6개의 찬양팀이 개회 직후 찬양 무대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 크리스천 케이팝팀인 'LAST'와 구순연 국악찬양가수, 뿔라 중찬단은 매일 무대에 섰으며 이 밖에 뉴욕목사합창단, 뉴욕사모합창단,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합창단, 여의도권사찬양대, 엔제이클래식오카리나 앙상블,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쥬빌레이션 합창단, 필그림무용단, 뉴욕장로성가단, 롱아일랜드교회연합찬양대 등이 참여했다.

집회 중 찬양순서로도 뉴저지목사합창단, 백기현 교수, 여의도권사합창단, 어린이할렐루야대회 합창단, 뉴욕크리스천코랄 합창단 등이 참여했다. 찬양대로는 첫날 프라미스교회, 둘째날 뉴욕효신교회, 마지막날 퀸즈장로교회가 참여했다.

다양한 찬양팀들의 다채로운 무대에, 참석한 뉴욕지역 성도들 또한 크게 호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신나는 무대에서는 함께 랩을 따라부르며 웃었고 엄숙한 무대에서는 경건하게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깊이 묵상했다.

기존에서 대폭 늘어난 찬양 순서로 인해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진행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매일 5-6팀이 2곡 이상을 선보이면서 집회 시간이 늘어나 설교시간이 비교적 단축되고 전체적인 집회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첫째날과 둘째날 이영훈 목사는 기존 할렐루야대회와는 달리 30분 가량의 비교적 짧은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집회는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 시간 가량 설교한 마지막날 집회 진행시간은 총 3시간 30분 가량이었다.

또 다양한 찬양무대가 선보였던 만큼 조명 등의 연출 또한 다양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의 참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할렐루야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형식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다채로운 변화를 주고자 했다는 점은 이번 할렐루야대회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훈 목사 설교 키워드 믿음, 기도, 복음통일, 성령

이영훈 목사는 첫째날 '믿음의 역사'(히 1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둘째날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행3:1-8), 셋째날은 '성령을 받았느냐?'(행19:1-7)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첫째날과 둘째날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와 '믿음'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메시지를 첫째날과 둘째날에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를 통해 성도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던 간증들과 목회 중에 있었던 기도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눴다.

특히 이영훈 목사는 '복음통일'을 이틀 연속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현재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 "하나님께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을 들어 쓰고 계신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서는 자체에 대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복음통일과 관련, "진정한 통일은 북한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하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날 이영훈 목사는 3일간의 집회 중 가장 긴 설교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3일 연속 설교시간 이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순서를 갖고 2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인원동원으로 희망 보여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다소 빈자리가 많이 보였던 둘째날을 제외한 첫째날과 마지막날은 프라미스교회 좌석을 가득 채우면서 인원동원 측면에서 무난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할렐루야대회는 뉴욕교계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들어 인원동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뉴욕교계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집회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렐루야대회 또한 성도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이 늘 아쉬운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첫째날 프라미스교회 찬양팀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큰 규모의 찬양팀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예년보다 전체적으로 집회 인원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할렐루야대회가 매년 인원동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대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지만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이러한 우려들을 다소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혼합주의, 인본주의, 동성결혼은 '악'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대회 마지막날 '할렐루야 2018 대뉴욕복음화대성회 선언문'을 통해 뉴욕교회들의 신앙정통성을 분명히 했다. 선언문은 "비진리인 이단사이비, 신비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세속화, 동성결혼 등으로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이 땅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력한 신앙의 자세를 천명했다.

또 선언문은 미국에 대해서도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점차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약화되어 정치적 권력과 물질의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려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다시금 청교도 정신을 일깨워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임을 깨우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선언문은 "이 땅에 복음적인 이민정책이 세워지고 우리 선진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해 뉴욕지구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터전이 구축되도록 예배와 교육과 선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한 침례와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협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전심전력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11:0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 유치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중 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한어청년부 오후 2:15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장신대 임성빈 총장

"장신대가 동성애 지지? 사실 아냐"

'장신 공동체에 드리는 총장서신' 통해 입장 표명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이 지난 20일 '장신 공동체에 드리는 총장서신'을 통해, 최근 '동성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총장은 "얼마 전 우리의 지체 중 몇 사람이 채플실에서 한 행동은, 동성애 찬성이 아니라 동성애자 혐오 반대에 목적이 있었다는 본인들의 입장표명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내외에 커다란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관련 보직교수들과 지도교수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지도에 전념해 왔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육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전했다.

임 총장은 "우리는 교계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배움의 여정에 있는 학생들을 엄중히 지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지도자로 구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신대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왜곡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작위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총장은 "장신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을 토대로 복음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성담론이 회자되는 세상 속에서, 성경과 복음에 기반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기연 관계자들 ⓒ한기연

백두산 천지에서 평화통일 기도회

한기연, 광개토대왕비 등 방문하며 역사의식 고취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지난 16~20일 백두산 천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갖고 남북한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기연 공동회장과 법인이사 등 임직원 40명이 참가한 이번 백두산기도회는 남북정상이 전쟁이 아닌 대화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때에 발맞춰 한국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남북 화해를 실천해 나가자는 목적과 취지로 마련됐다.

한기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요한 목사)가 주관한 이번 기도회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대련을 거쳐 단동에 도착해 압록강 건너편 북한 신의주 혜산 지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압록강 상류에서 수풍댐까지 왕복 2시간여 배를 타고 북한에 인접한 지역까지 돌아보며 북한동포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셋째 날인 18일(수)에는 숙소인 통화에서 버스편으로 4시간 여를 달려 백두산 서파에 도착해 1,442개 계단을 올라 천지를 등정한 후 이명섭 목사(법인이사)의 사회로 백두산 평화통일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묵도 후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79장)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소리높여 제창한 후 1.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 회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2. 남북한 일천만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속히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3. 지금도 목숨걸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20만~40만명)의 기도를 들으사 북한교회가 재건되고 자유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4. 남북한 모두가 힘을 합쳐 평화와 축복의 나라,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를 제목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통성기도한 후 송태섭 목사(공동회장)의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마쳤다.

천지에서 내려와 도보로 금강대협곡을 탐방한 후 다시 통화시로 돌아온 방문단은 오후 8시 숙소인 한림원호텔 2층 세미나실에 모여 수요예배를 겸해 '한반도에 평화를'이란 주제로 2018 남북평화통일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공동회장 김효종 목사(호헌 총회장)의 사회로 최길학 목사(법인이사)가 대표기도했으며, 선교위원장 박요한 목사(합동해외 총회장)가 설교했다. 이어 강동규 목사(개혁선교 총무)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윤경원 장로(기독시민협 사무총장)가 '북한동포의 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해', 강명이 목사(합동해외 총무)가 '전쟁의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곽명선 목사(호헌 총무)가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각각 제목기도를 인도한 후 통성으로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바울 목사(호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요한 목사는 '깨끗하게 쓰임받자'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큰 울림이 되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섬김을 감당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단은 넷째날 통화에서 집안시로 이동해 광개토대왕비와 능, 장군총(장수왕릉), 환도산성 등 고구려 유적지를 돌아보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유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았으며, 단동으로 돌아와 일정을 마무리한 후 20일(금) 오전 대련을 거쳐 귀국했다.

한기연은 백두산 기도회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제주도에서 평화통일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평화"를 주제로 열리게 될 제주도 행사는 다문화, 탈북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초청해 2박3일간 유네스코 지정 '평화의 섬' 제주도의 곳곳을 탐방하고 저녁에는 기도회와 포럼을 개최해 "평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중국 동남부 지역인 장시성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있는 중국인들. ⓒ한국 순교자의 소리

베이징 당국, 시진핑 초상화 철거 지시

"개인숭배에 대한 중국 내 반감 고조 이유"

중국 베이징시 지역 당국이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상화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미국 중화권 매체 차이나디지털타임즈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순이구 당국은 지난 13일 관내에 통지문을 전달해 "19차 당 대회 관련 구호들을 제거하라는 시 선전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선전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이를 모두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철거 대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길잡이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자',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자'는 15종의 구호가 담긴 플래카드, 입간판, 선전판 등이다. 시 주석의 초상화 철거뿐 아니라 정치표어도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은 시 주석 개인숭배에 대한 중국 내 반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둥대학 퇴직 교수인 쑨원광(84)은 20일 공개 서신을 보내 "중국은 학교에 못 가고 노후를 보살피기 힘들며 병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이 여전히 많고 1인당 GDP도 세계 79위에 불과하다"며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에서 독재자들을 지원하느라 돈을 펑펑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의 21, 22일자 1면은 시 주석의 아랍에미리트 및 세네갈 순방 기사로 도배됐다.

외신들은 "열흘 간이나 베이징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시 주석의 권력이 여전히 흔들림없이 공고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중국 당국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 초상화 대신 시 주석 초상화를 달면 보조금을 준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공산당이 가난한 마을에 생활보조금을 내걸어 종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기사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은 100만 명의 인구 중 11%가 평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일 정도로 가난하면서 중국 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브런슨 선교사와 아내 노린의 모습 ⓒ페이스북

터키 법원, 미국인 선교사 석방 또 기각

트럼프 대통령, 터키 향해 석방 요구

터키 법원이 테러지원 등의 혐의로 구금된 미국인 선교사의 석방을 기각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터키 법원은 18일 테러지원 혐의로 2년 가까이 구금 중인 앤드류 브런슨 선교사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반정부 활동가인 페툴라 굴렌과 쿠르드노동당 PPK를 지지하고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분류된 국가 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터키에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내 노린과 함께 이즈미르에 작은 개신교 교회를 개척한 그는 지난 2016년 10월 체포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을 상대로 일으킨 쿠데타의 주동자로 굴렌을 지목한 바 있으며 브런슨 선교사는 굴렌의 활동을 지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터키 법원은 4월 16일, 5월 7일에도 석방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번이 세번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에 2년 가까이 구금된 브런슨 선교사를 석방해 달라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터키가 존경받는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그는 너무 오래 구금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훌륭한 기독교인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 목사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 가족은 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Daily Sabah)는 한 익명의 목격자를 인용해 "굴렌이 브런슨의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했으며, 브런슨은 굴렌의 반정부활동 회원이었다"고 보도했다.

브런슨 선교사의 딸 재클린은 최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아버지의 석방을 호소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모든 혐의들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안다. 아버지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무장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분은 평화로운 목회자이시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터키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들은 터키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20년이 넘게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헌신하셨다"면서 "작년 8월, 면회가 허락되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무 상하시고 마르시고 절망적인 모습에 보기가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를 소개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이 편지글에서 "이 점은 분명히 하자. 난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 목사이기 때문에 수감된 것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 그립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 갔던 수 많은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 예배 오전 8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행복재단(한영재)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일보, FHM미션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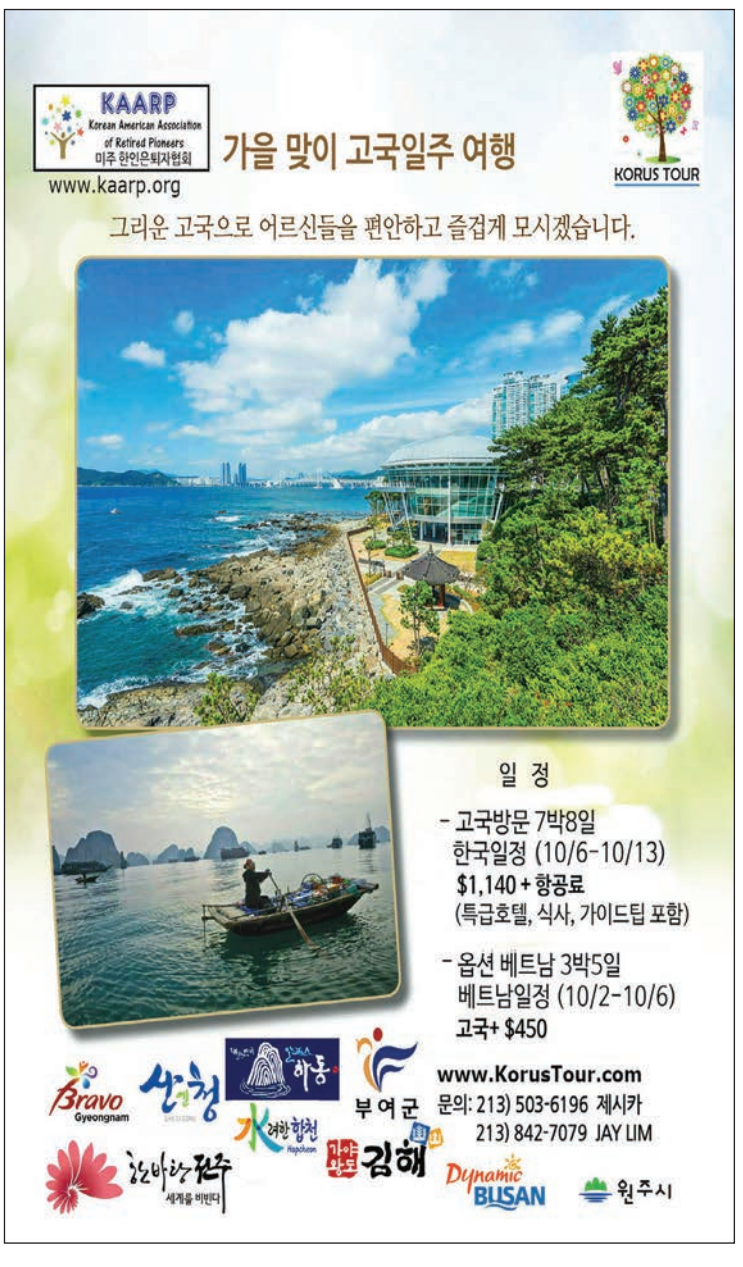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속히 오신다는 주님, 왜 아니 오시나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겠다"는 약속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계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22:20)

이 정도의 약속이면 확실한 약속입니다. 세 번을 반복한 약속이면 어길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우리가 오해한 것일까요? 성경 속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 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민폐만 끼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프닝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서 '속히'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타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재빠른(quick), 신속한(swift), 혹은 순식간에(fleet)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속히'라는 의미는 "빨리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 흘려 구원하신 사랑하는 신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날마다 재림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신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우리들의 어려움을 보시면 당장에 오고 싶은 것입니다. 핍박하는 세상과 짐승의 권세를 당장에 격파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신자들, 태어나지 아니한 성도들 때문에 고통스런 기다림을 계속하십니다.

둘째로 '속히' 오신다 함은 예수님의 재림이 결정된 순간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아2:8).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3년 반을 공중 재림한 채로 있다는 것은 성경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입니다. 왕이 파견한 통치자가 다스릴 나라의 국경에 도착하여 영접하는 무리를 만난 후, 국경에서 3년 반을 지내다가 온다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하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셋째로 '속히' 오신다는 것은 "불시에 오신다"는 것이며, "도적같이 오신다"(마24:36, 43-44)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도둑이 그 시간을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오래 참으시는 중에 성도의 충만한 수를 다 모으시면, 불시에 임하십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소망하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 때문입니다(벧후3:11-12). 우리는 깨어서 즐거이 응답하여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마라나타!"(고전16:22)

상처가 무늬되게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회복을 체험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수위권교회'라 부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바위(Mensa Christi)' 즉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 주셨다는 그 곳에 엎드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따지고 싶었을 현장이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조반을 차려 주시면서, 무언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안 그래도 죄책감과 미안함과 후회, 좌절, 패배의식 속에 있었을 베드로는 주님의 아침상에 눈물부터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눈물과 함께 마음이 녹아내리던 그 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질문은 제가 그 현장 서 있을 때마다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의 밥상을 다시 받아 들고 눈물만 흘릴 때였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밥상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인색한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결코 나의 열심이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던 것을 자주 망각하는 죄가 제 맘이 달궈진 칼끝에 데이듯 뜨겁게 다가오던 현장이었습니다. 가끔 이 은혜가 희박해지는 듯하면 은혜의 칼끝에 데인 가슴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상처가 많은 나무가 무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일방적으로 당한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자기의 죄와 불순종, 혹은 억울한 상황에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상처'라는 단어가 너무 남용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사 자국이 남아 있듯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영적인 흔적이 심장 수술을 받은 분처럼 제 가슴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죄이지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나의 죄악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이 요즘에 무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실감합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격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 잘 달려가라'하는 듯이 무늬가 나타나고, 부끄러울 때는 밥상 들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무늬로 등장하곤 합니다. 과거 불순종한 죄로 남겨진 상처는 우리를 기죽이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흔적입니다. 나의 상처는 지금 어떤 무늬를 만들고 있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사람은 왜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것을 고민하다가 생겨난 학문이 철학입니다. 학문의 정점에 이른 사람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이 박사 학위의 영문식 표현이 Ph.D.입니다. Ph.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의 학문은 '사람의 존재의미 찾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학문은 사람의 존재 과정을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그 진화론적 개념에서 사람의 존재 이유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었고, 그것이 인간이 되었기에 사람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치를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치를 두었기에 나도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 차고 안에는 박스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박스들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제 눈에 이 박스는 버려도 무방한 책들, 교육용 교재들, 교육용 시청각 자료들로 가득차 있어 보입니다. 몇 년 동안 차고 안에 놓여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여서 정말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치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박스에는 아내가 '중요한 것들'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쓰레기에 가까운 것들인데 말입니다. 몇 번이고 버리고 싶었는데, 그 박스에 '중요한 것,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고 써놓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냥 놔둔 것입니다. 얼마 전 차고를 청소하며 웬만한 것은 다 버렸는데도 그 박스들은 못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아내는 고마워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행동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간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I am Sam'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과연 자신의 딸을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이 등장합니다. 판사는 지식이나 재능, 능력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판결합니다. 영화를 보며 든 생각은, 사람은 사랑으로 키우고, 또 키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배제되면 사람은 불편한 존재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할 최선의 태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세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태도가 교제, 섬김, 복음증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사랑의 태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스타브 도레의 큰 삽화로 보는 책 중의 책 "성경"

압도적 크기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 한길사 발간

귀스타브 도레의 성화(聖畵) 241점이 들어가 있는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가 발간됐다. 이 책은 일반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아날로그 책'의 미학을 살리기 위해 기획한 '큰 책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가로 28.5cm, 세로 42.3cm, 두께가 7cm에 달한다. 압도적인 크기에 무게는 5.5kg으로, 들고 다니면 금세 팔이 저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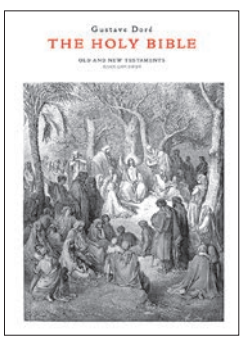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는 19세기 유명 화가이자 수많은 성화를 그렸던 귀스타프 도레가 그린 한 길책박물관 소장 1866년판 '더 홀리 바이블(The Holy Bible)'을 저본으로 한다. 책 왼쪽 면에는 관련 성경 본문을, 오른쪽 면에는 도레의 성화 작품을 배치했다. 삽화와 함께 소개된 성경 구절들은 출판사에서 관련 내용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임의로 발췌해 실었다고 한다.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에서 도레는 성서 속 내용을 단지 상상력뿐 아니라, 여러 사료와 학문적 자료들에 입각해서 그려냈다. 강렬한 종교적 비전을 담은 이미지들로 경의롭고 환상적이며 서정적이고 웅대한 느낌을 주고 있다. 19세기 '부르주아'들에게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 소유는 큰 자랑이었다.

도레는 애초에 228개의 삽화가 실린 초판본을 1865년 프랑스 투르에서 간행했고, 이 성서 속 이미지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도레는 성서 속 삽화 작업을 1860년대 후반까지 지속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판이 간행된 이 작업에는 30여 명의 판화가가 참여했다. 그래서 도레의 작품들에는 그의 서명과 판화가의 서명이 양쪽 아래 부분에 따로 들어있다.

한길사 김언호 대표는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만들었다"며 "종이도 가능한 한 부드럽고 오래 가는 최고급 종이를 쓰기 위해 스위스에서 공수했다. 종이가 오는 데만 3개월 걸렸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큰 책 시리즈'를 성서로 시작한 이유는 당대 최고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이라며 "성서의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흑백만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그려냈다는 게 놀랍다. 도레는 천재적인 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성서를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문학이나 미술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며 "도레는 하나의 역사로서 그 스토리들을 그려낸 것이다. 책을 만들면서 만난 도레는 제게 스승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성서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책 중의 책' 아닌가"라며 "가장 많은 그림을 낳은 책이 '바이블'이다. 평생 책을 사랑하고 모아 왔는데, 이런 저런 바이블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림도 많다"고 했다.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
귀스타브 도레
한길사 | 528쪽

해설을 맡은 신상철 교수(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는 "도레는 삽화를 텍스트에 종속되거나 텍스트를 보조하는 장치가 아니라, 삽화 자체가 독립된 구성을 갖도록 했다"며 "신약과 구약 삽화를 비교해 보면, 구약은 좀 더 격정적이고 웅장하며 신약은 좀 더 서정적이다. 예수의 삶을 잔잔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도레의 작품은 너무 강렬하고 명암이 극렬하게 대비되며 사람들의 제스처도 역동적이라 처음에는 두렵거나 거리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관람객들의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며 "예술 작품은 균형과 조화, 좌우대칭 등의 요소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숭고의 미학, 정서적 효과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1866년 책의 초판은 성경전서인데, 4쪽마다 삽화가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삽화가 텍스트와 꼭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 구성을 갖도록 했다"며 "도레는 당시 기계로 하는 동판화 기술이 발전돼 있었음에도 목판화처럼 사람이 직접 파는 수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으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야 영적인 힘이 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문 목판화가를 무려 160명이나 고용해서 함께 일했다"고 했다.

신 교수는 "19세기 초반은 인쇄·제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책 단가가 낮아져 프랑스 출판 문화가 전성기에 접어든 시기였다. 반면 책을 많이 팔기 위해 삽화도 대량으로 제작하다 보니 값싼 삽화들도 많이 등장했다"며 "그러나 도레는 이런 추세에 정반대로 나아갔다. 전문 판화가를 고용해 매우 고급스러운 판화를 제작하고, 종이도 최고 재질을 써서 삽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책 자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신상철 교수는 "도레는 당시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의 그림에는 여러 작가들의 형식 요소가 섞여 있다. 렘브란트처럼 명암이 극도로 대비를 이루고, 영국 풍속화처럼 모든 인물들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며, 독일의 풍경화처럼 나무들이 울창하다"며 "낭만주의를 기초로 여러 양식들의 장점이 혼합돼 있는데, 이를 미술사에서 '절충주의'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실제로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 속 큰 삽화들은 처음 보면 19세기 작품으로 알기 어려울 정도다. 마치 렘브란트의 성화를 판화로 옮긴 듯한 느낌도 준다. '노아의 홍수' 장면은 일반적인 '방주'가 아니라 방주에 타지 못한 채 바다 같은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고, 출애굽 전 열 가지 재앙 중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집을 나서는 칼 든 천사의 시선을 담았다. 그런가 하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실낙원' 속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는 근대성이 느껴진다.

◈디지털에 없는 아날로그 감성

한길사 김언호 대표는 디지털에서 느낄 수 없는 아날로그만의 감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은 굉장히 작게 가고 있는데, 큰 책을 통해 디지털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본래 책은 좀 컸다. 기계화가 안 돼서 크기도 했지만, 눈으로 보는 데 적당한 크기의 책이라야 우리의 인식을 돕는 듯하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디지털에 함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깊은 사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미학 책이 훈민정음이다. 문자는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미술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한글이라는 문자로 책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책은 아름다울 수 있다. 책이 소비재로서가 아닌, 보존되는 가치 있는 작품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길사는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성서〉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1천 권만 발간하고, 각 권에 번호를 매겨 소장가치를 더할 계획이다. 1천 권이 다 소진돼도 추가 발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훼손을 우려해 시중 서점에 내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올 경우 보내준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한편, 귀스타브 도레(Gustave Doré, 1832-1883)는 '문학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은 삽화가'로 불린다. '근대 일러스트의 아버지', '19세기의 카라바조'라는 평가도 받았다. 프랑스 태생의 도레는 스트라스부르에서 토목기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다섯 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성서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열다섯 살 때부터 이미 재능을 인정받고 잡지에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밀턴의 〈실낙원〉부터 단테의 〈신곡〉,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까지 빛의 다양한 무게감으로 작품의 내용과 메시지를 삽화로 완벽히 표현했다. 당대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 중 도레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텍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던 '삽화'를 한 차원 승화시켜 하나 하나 명화로서의 깊이와 울림을 뽐내고, 고전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대웅 기자

작은 교회 사라지는 것 대안을 잃어버리는 것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
정재영
SFC출판부 | 280쪽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는 정재영 교수가 책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SFC)를 펴냈다.

출판사인 SFC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에 몸부림치는 현대 한국인들과 현대 한국사회 역시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럴 때 교회가 각자가 터한 지역사회에서 복음이 담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개인들의 마음을 지키고 사회의 어둠을 몰아낸다면, 사회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위해 이론과 사례를 충실하게 담아 교회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안내서"라고 소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 년에 삼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개교회들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특히 교인들이 큰 교회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개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작은 교회를 단순히 규모가 작은 교회라기보다는 '공동체성이라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중시하고 추구하는 교회'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작은 교회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그러니 작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곧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기독교인은 단순히 개교회에 속한 '교인'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기독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렇게 훈련된 기독시민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공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꾸고, 정치와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우리 사회의 삶의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기독시민들의 힘을 모을 때"라며 "기독교인들이 지역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현재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선교의 지평도 더욱 의미 있게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Fitting Technology GOLF FiTec
세상에 오직 하나 ...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am ~8:00pm

미국 스팩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팩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등 미국 스팩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팩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ting Technology GOLF FiTec
MATRIX SHAFTS FOURTEEN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 송금·환전 빠른 지급
$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3.5 6.0 중성 7.0 8.5 9.0 9.5 알카리성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스라엘 건국 지도자 헤르첼의 무덤

하르 헤르첼에 있는 무덤들. 이곳에는 주로 전몰 군인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묻혀 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83)

이스라엘 국립묘지 하르 헤르첼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벤야민 제브 데오도르 헤르첼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그에 의해 나라가 건국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근대 국가 형성기에 유럽 각국에 흩어져 어렵게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는 1860년에 태어나 1896년에 'The Jewish State'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출간을 기회로 1897년 첫 번째 전 세계 시온주의자들의 회의가 열리고 바젤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인에 의해 나라가 건국되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는 1904년 그의 나이 44세에 사망하여 비엔나에 묻히게 된다. 그의 꿈대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그는 1949년 8월 17일 이스라엘로 유해가 옮겨져 그의 이름을 딴 언덕, 하르 헤르첼(Har Herzl)에 묻히게 된다.

그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인들은 건국 전에 속속 이스라엘로 이민을 해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든든한 나라를 1948년 5월 14일 세우게 된 것이다.

이 헤르첼 언덕 또는 기억의 언덕(Harha-Zikaron)은 예루살렘 시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립묘지로서 현대 시온주의 운동의 창시자 헤르첼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지난 글에서 방문한 야드 바셈과 붙어 있다. 1949년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유명 인사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으며 주로 전쟁 중에 사망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해발 834m에 위치하고 있다,

헤르첼의 무덤은 806m 지점의 국립묘지 제일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얼핏 보면 무덤이 아니라 무슨 기념비처럼 생긴 것이 그의 묘이다. 그의 묘를 중심으로 1951년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 서남으로는 역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수상 장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서쪽으로는 독립전쟁부터 최근의 레바논 전쟁에 이르기까지 죽은 용사들의 무덤이다. 나이들을 살펴보니 겨우 19살, 20살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다. 결국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젊은 병사들이었던 것이다. 서북으로는 해전에서 죽은 용사들을 위한 묘지도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곳은 묘가 없고 바다를 상징하는 연못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다. 해전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시신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름만이 이곳에서는 기념될 뿐이다.

이츠하크 라빈 前 총리는 1922년에 태어나 1995년 우익에게 암살당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데 그의 무덤은 부인 레아와 나란히 서남 구역에 있다. 하얀 대리석은 레아를, 검은 대리석은 라빈을 나타내고 있다. 1973년의 대속죄일 전쟁의 주인공 골다 메이어 수상(1969-1974년 재임)의 묘소도 라빈의 묘소 옆에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된 이곳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여름과 겨울에 따라 다름)까지 문을 연다. 국립묘지 입구 왼편에는 헤르첼의 박물관이 있어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꼭 방문해야 할 것이다.

편안하게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며 무덤 사이에서 역사의 오솔길을 걸어보는 것도 이스라엘 방문 중 정겨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다는 진리를 이곳은 잘 보여주고 있다. 무덤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서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누구나 똑같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국립묘지이다.

〈계속〉

이스라엘 국립묘지 하르 하르첼에 있는 장식물

이곳에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과 군인들

이츠하크 라빈(우)과 레아 라빈(좌)의 무덤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앎,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6월 21일 개강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M.A 석사과정 | 48학점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213-272-6031

성육신화 목회로 4차 산업혁명 도전 극복해야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박성진 학장 인터뷰

구체적인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현대 교회가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위기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도 대다수가 동감할 것이다. 미국의 한인 신학교육이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지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mbts.edu)의 박성진 학장과 이 문제를 놓고 세 번째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속에 신학교육과 목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드웨스턴은 미국 지도의 정중앙에 있는 미주리 주 캔사스 시티에 있다. 미국 한복판 백인 위주의 지역에 있는 미국 신학교에서 아시아부 학장을 맡아 한국과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박 학장은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BC) 6대 신학교의 학장들 가운데 유일한 한인이기도 하다. 그는 달라스신학교에서 신/구약학으로 Th.M. 학위를 받았고 히브리유니언칼리지에서 고대근동학과 비교셈족언어학으로 M.Phil.과 Ph.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구약학 복음주의 학술지인 JESOT(Journal for the Evangelical Study of the Old Testament)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각종 학술지에 이스라엘과 우가릿의 종교 연구와 구약 해석학, 그리고 맛소라 학파의 강세 관련 논문을 주로 기고하고 있는 신진학자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개념조차도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으로 인해 발생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어에 따른 생산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발달한 개별 산업들이 융합돼 지능산업화 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다. 쉽게 말해서,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정보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지능화다. 현재 빅데이터 통계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무인 자동차, 아마존의 무인 배송 시스템 등), 3D 프린팅, 그리고 나노 기술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술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서 세계 최고의 기사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바둑만큼은 인공지능도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뇌를 모사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고는 딥러닝을 통해 인간의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적 존재임을 증명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실생활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화(O2O; Online to Offline)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홈 시스템에 장착된 컴퓨터는 사용자의 생물학적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사용자의 몸에 장착된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를 통해 심장박동 및 체온을 측정하여 중앙 컴퓨터에 자료를 제공하고 중앙 컴퓨터는 사용자가 최적의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에어컨의 풍속 및 풍향, 조명의 강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요약한다면, 공간 속에 생활하는 인간과 주변 사물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초연결성, 통합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는 초지능성, 분석된 패턴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의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현 사회에, 목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하는가?

4차 산업혁명은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다른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결국 소비자의 욕구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계 기법이 사용될 것이고, 이를 최대로 만족시키기 위해 연관된 기술들을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차별성은 기술의 자율적 판단와 대상의 개별적 만족에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자동화로 인한 대량생산에 초점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인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3차 산업혁명이 기성품의 대량생산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맞춤품의 개별화된 생산이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귀하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18%) 또는 '가까운 미래에 위협할 것'(57%)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실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아마존과 같이 물류 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분야에 이제는 로봇이 투입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의 잠식은 곧 대다수 생산노동계급의 잠식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사람이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해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될 수 있다.

목회에도 많은 도전이 도래할 것이다. 목회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세대 간의 골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1세와 2세 간의 소통의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교회들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기술 문화에 1세대의 괴리감을 증폭시킬 것이고 개인화된 기술 문화에 빠져있는 2세대의 고립을 가속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와 비생명체와 같이 기존의 이원적인 경계가 기술의 자율화로 파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인간 본질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논의가 새롭게 제기될 것이다. 알파고는 인간의 입력이나 개입이 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바둑의 다음 수를 선택하였다. 새로운 영역에 이런 자율적인 판단을 할 알파고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하는가? 이들의 자율적 행동이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 이들에게 도덕적 감수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겠는가? 인간을 규정할 때 많이 등장하는 지·정·의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지적, 의지적 영역을 이미 넘어섰고 이제는 감성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인간과 매우 유사한 인공지능의 대두는 매우 복잡한 윤리적 도전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박성진 학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사회의 변화는 교육에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교육에도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교육으로 여겨지지 않고 토론과 창의성 위주의 교육방식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즉 '거꾸로 교육'(Flipped Learning)이 교육 현장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복습하고 다시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교육'은 집에서 학습하고 학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토론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교육이다. 지식 정보의 단순 축적보다는 지식의 평가와 활용이 더 중요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이나 협업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마도 미래에는 지식을 전수하는 교수보다는 해당 지식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코치라 부르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이런 변화 속에 복음주의 신학 교육과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학교육과 목회의 '성육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복음주의 신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석의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물론 이런 초점은 지속되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성경이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파

2018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악하기 위해 신학자와 목회자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 초점을 흩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하여 다초점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성경을 읽는 독자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 본문과 성경 뒤(성경의 배경을 의미)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앞(독자와 현대 상황)을 알아야 한다. 목회자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 삶을 이해해야 하고, 시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석의의 거탑에만 갇혀 있는 목회가 아니라 광장으로 나온 목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머무신 것처럼, 신학 교육과 목회도 성육신화 되어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2-3천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의 시대적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의미가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더욱 부각될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을 통해 배태되는 무형의 디지털 세계관은 현실(reality)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간 간의 소통은 더욱 단절될 것이고 인간과 디지털 세계와의 소통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지만 사회적, 종교적 인간 본연이 느끼는 소외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럴수록 성도들의 파편화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화의 시도는 더욱 중요하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유기체적 공동체에 대한 실제적 조명과 적용이 다시 부각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신학 교육 방법론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 고등교육위원회는 2030년까지 미국 고등교육의 40% 정도를 온라인 교육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미국 대학교의 온라인 교육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신학교도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최근 신학교마다 학생이 줄고 있어서 재정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다, 학교 건물을 관리,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매우 크다. 온라인 교육은 이런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에 강의실 위주의 교육을 선호했던 신학교에서도 이제는 온라인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 기술이 온라인 교육에 접목됨에 따라 마치 강의실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발전했다. 가상현실 기능을 사용한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나 터키의 고고학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지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성경 석의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도 적지 않지만, 대세인 온라인 교육으로 수준높은 신학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

-목회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책을 조언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 전반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과학의 발전 속도를 신학 교육이나 목회가 따라갈 수 없는 시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정·의 가운데 지적, 의지적 영역은 이미 인간을 따라잡았고 정적 영역도 머지않아 인간에 가깝게 모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사는 인간의 감성까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지닌 영적 세계는 인공지능도 모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기에 목회의 중요성이 있다.

목회의 기초를 제공하는 신학 교육도 원문 분석이나 주해, 고대근동학적 지식의 융합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혼을 지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적절성을 가질지는 오로지 영성 있는 목회자들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사역에 달려 있다. 교회의 수적 성장을 추구할 때가 아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만족을 주는 교회가 살아남는다. 영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다.

목회자는 교회가 다가올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유례없는 많은 도전을 교회에 가져올 것은 분명하지만, 목회자가 이런 도전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세대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 복음으로 잘 준비된 새로운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회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목회자들은 성육신화 된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오는 도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김준형 기자

"통전적 이슬람 선교 대책 세워야"

이집트 김신숙 선교사, 이슬람대책아카데미서 제안

2015년부터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는 더 이상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제주에서 예멘인 560여 명의 집단 난민 신청 사태로 우리 사회에도 난민과 관련한 총체적인 문제와 대응 방안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집트에서 41년간 사역하면서 애굽선교센터 원장, 알샤피아 선교훈련학교 교장, 애굽복음주의신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숙 선교사는 얼마 전 한국 충현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열린 2018 총회(예장 합동) 이슬람대책아카데미에서 무슬림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의 대안 등을 소개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학적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난민의 위기는 무슬림 선교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확장에 대비해 한국선교는 2030년을 내다보는 선교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선교는 절박하다"고 말했다. "무슬림 난민 중 많은 무슬림이 무신론자로 전락하거나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교회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해주는 기회가 많기를 기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150만 명이나 사는 그리스에서는 상처와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난민들이 아테네 도심에서 빈민가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통제된 삶을 살다 무방비한 환경 속에서 쉽게 마약과 매춘업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다수 무슬림이 비아랍어권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다. 김 선교사는 "아랍어에 능통한 현지인 사역자와 선교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미래의 중동 무슬림 선교는 지역 중심 선교보다, 필요한 곳 중심의 모바일 선교 및 움직이는 사역으로 일어나야 하며 이 사역에 한국교회의 협력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이슬람권 국가가 '난공불락'같이 보일지라도, 지난 20여 년간 '이슬람의 집'에서는 전무후무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김 선교사는 "29개 이슬람 나라의 70개가 넘는 지역에 예수를 따르는 69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1개 운동은 100개의 새 교회가 개척되고 1,000명 이상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19일 레바논에서는 50명의 중동 출신 회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조사했다. 개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성경공부'였다. 그 다음 요인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스타일 △이슬람에 대한 불만 △믿는 이들과 우정 △예수에 대한 놀라운 발견 △꿈, 환상, 기적들을 통해 △정신적인 고민 △기독교 미디어 △꾸란 구절 등이었다.

진정한 평화를 주는 종교를 찾다 복음을 영접하는 무슬림 난민들도 있지만, '이주'를 이슬람 확장의 전략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도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김 선교사는 강조했다. 무슬림들은 군 침략, 포교, 이민, 결혼, 출산의 5개 전략을 사용하여 전 세계 이슬람화를 이루려 한다. 현재 이슬람 인구는 70억 세계 인구 중 25%가 넘는 16억 이상이나,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2030년에는 2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무슬림은 2010년 250만에서 2030년 620만으로, 유럽은 현재 5,200만에서 20년 후 1억40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화, 근대화를 추구하는 이슬람 젊은이들, 세계화와 함께 촉발되는 지역화, 세속화, 포스트모더니즘적 청소년 문화 확산, 한국의 다민족화 등이 그렇다. 김 선교사는 "그 속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선교의 주체이자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며 선교학적 교회론과 한국선교신학을 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가 제시한 '통전적 선교' 전략의 첫 단계는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한 '특수 부대 파견 및 정탐'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위성방송'이라는 '미사일 부대 공격'(공중전)과 현지 교회와 성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상부대 투입'이다. 마지막 단계는 개종자들과 한국에 나온 외국인 노동자 및 다민족 등이 '적진 속의 지상군'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현지교회, 현지 선교단체의 대협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① 미디어 선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터넷 보급률 상승,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공동체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의 이동으로 미디어 접촉의 다양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김 선교사는 "SAT 7 방송, 싸크라(반석) 미디어 외 16개 위성방송이 이 지역에 있다"며 "2011~2017년 사이 SNS, 페이스북 사용자 증가가 빠른 국가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튀니지, 요르단, 레바논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여러 나라의 혁명 이후,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며 "미디어는 닫혀있는 나라에서도 강요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해 시청 가능하며, 개인과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믿는 자들의 열악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며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② 인력 개발

김 선교사는 많은 전문인 선교 인력을 모으기 위해 젊을 때부터 선교사가 될 사람을 발굴하여 양육해야 하며, 이들이 이슬람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는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선교사 인력을 개발하고 양육해야 하며, 준비된 사람들이 적합한 자리에서 사역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슬람을 향한 선교전략 모색

이슬람에 대한 선교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선임선교사를 선발하여 연구 시간 및 재정을 지원해 전략을 세울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세계화와 대협력

이슬람권 복음화는 모두의 연합으로 가능하다. 김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 운동도 선교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한다"며 "교단, 초교파 선교단체, 선교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협력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가장 값진 노력이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 확장은 날마다 더해가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매 무슬림 영혼 구원을 준비하는 계기를 주신다.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고 선교하는 한국교회로서 다시 한 번 열심을 내어, 대연합을 이루고 이슬람 선교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공동체, 훈련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제 5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PCA 인랜드교회 Inland Church
www.inlandchurch.org

자격
-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5년 이상 미국에서 Full-time으로 목회한 분
-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분
-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한 분

제출 서류
- 본교회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목회 안수 증명서, 최종 졸업 및 학위 증명서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DVD/오디오파일도 가능) 및 영어설교 1편 (Optional)
- 한글 본인 소개서(영문 소개서 – Optional):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소명
- 3명의 추천서(추천서는 추천인이 본교회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Attn: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제출 마감
2018년 9월 30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제출 방법: 이메일 (PDF로 작성) 또는 우편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Holy Spirit Conference

영혼의 샘 성령컨퍼런스

2018. 7. 25 (수) - 2018. 7. 30 (월) **오후 7:30**
하루 1번 (7.29 주일에는 오전 11시)

2018. 7. 31 (화) - 2018. 8. 6 (월) **오전 11:00 | 오후 7:30**
하루 2번 (8.5 주일도 동일)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213 674 7966 | 213 245 6616

BAEKSONG CHURCH LOS ANGELES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Berendo 사이 Holms Building Center 지하 1층,
Berendo길 혹은 New Hempshire길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YouTube 유튜브에서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보세요!

평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월, 수, 금 7:30 PM)

변화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치유
알코올 · 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혼육의 질병 치유

기적
찬양, 설교 등의 훈련
방언,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축귀사역,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백송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쫓았던 육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
가정의 회복, 인생의 회복을 누림
조주영 집사

한 번의 예배로 16년간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치료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됨
박재하 집사

공부는 소홀히하고 친구들을
괴롭혔던 문제학생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변화됨
김범준 청년

불행한 가정으로 인해
죽고만 싶었던 삶이
천국 가정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됨
송미호 권사

7개월 동안 병원을 280번 가도
치료받지 못한 영혼육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받고, 해결할 수
없었던 보증의 문제 해결받음
박혜지 권사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등
18가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삶을
치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됨
송유미 청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로 말미암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며 주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만남
서지영 전도사

방황하는 영혼들의 쉼터 **영혼의 샘** 지부 안내

해외지부
-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674 7966 213 245 6616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 인천본부 | 032) 469 0191 , 032) 323 1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231번길 20
- 보령 백송 수양관 | 041) 931 0195~6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 대구지부 | 053) 644 0175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

baeksong.kr